

창의적 영광농업, 강소농이 이끈다

실전지도 통한 경영개선 역량강화 심화교육 신규 자율모임체 구성 운영방향 등 논의 성과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8-19일 이틀간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강화 심화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소농'이란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업의 한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체간 협력과 끊임없이 경영개선을 실천하는 농업 경영체를 말한다.

영광군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신규 강소농 경영체 모집을 완료하고 최근 강소농 기본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심화교육은 기본 교육 수료자와 추가교육 대상자 중 경영개선 실천 의지가 높은 농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심화교육은 김금숙 강사 등 5명의 전문가의 나와 전문교육과 실전지도도를 통해

농업 경영체 스스로 농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어 그 결과를 토대로 농가 경영계획서를 수립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농업인들이 자율모임체의 필요성을 인식해 신규 자율모임체를 구성하고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등 자발적인 학습으로 교육성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영광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강소농의 경영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

라면서 "전문가의 정밀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농업경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블루베리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했다.

블루베리는 재배에 손이 많이 가고 생육환경 조성이 까다로운 작물로 초기에는 귀농인 중심으로 재배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나,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고품질 과실생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블루베리는 품종이 다양하고 품종마다 재배적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블루베리 작물의 특성을 기본으로 고품질 블루베리를 재배할 수 있는 생육관리법, 양수분시비법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구체적인 시비량 환산과 토양 및 병해충 방제에 대한 내용을 농장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노지 재배 농가들의 시설 재배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소방서 숙박업소 소방안전 선제대응 119안전센터와 화재예방 제도활동 전개

최근 전국적으로 모텔 등의 숙박업소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명피해가 잇달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소방서가 선제적 예방에 나섰다.

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만들고자 관내 모텔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 및 제도활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영광소방서는 관할 119안전센터와 함께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숙박업주와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이나 인명대피 요령 등 화재발생 시 숙박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을 타전 삼아 전전하는 장기 투숙객들이 늘어나면



서 이들의 취사행위 등 화기 사용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면서 "업주나 직원, 투숙객 모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2019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강화 심화교육'에 참가한 농업인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영암 초등학교 인성 교육과정 운영

내달부터...3단계 진행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 과정의 초등학교 인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달 전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한 학력인성 문제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에 응모해, 초등1·2학년 수준의 초등1단계 과정 2개 교실이 최종 선정됐다.

별도의 점정고시 없이 저학력 성인 학습자들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인성 교육과정은 총 3단계로 이뤄졌으며, 모든 교육단계 이수 후 전남도

교육청의 최종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서가 교부된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력인정서는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초등학교 인성 교육과정 수업은 영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된다.

만 18세 이상 초등학교 미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배움을 희망하는 주민은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은 지난 2008년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된 이후 10여년간 한글과 기본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왕인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왔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농업의 생산성 증대, 함께 고민해요"

무안군이 새해를 맞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의 농업행정에 반영키로해 주목받고 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9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미래농업발전협의회를 열고 농정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군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 농협 관계자, 농업 관련 단체 대표,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여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으로 운영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여러가지가 제시됐다.

특히 무안 지역에 집중돼 있는 양파, 마늘 등 밭 농업의 생산성 증대가 시급하다는 것과 함께 증산보다는 품질을 높

무안 발전협의회 개최...각계 의견 수렴



지난 19일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미래농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한 김산 무안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무안=김수형 기자 ksh@

이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

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농민 스스로 주인공임을 갖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부분의 전문성 증대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무안군은 앞으로 협의회에서 제시된 각종의견들을 각 부서 소관별로 검토 분석해 군정에 반영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 대부분이 '무안군 미래농업발전협의회' 개최가 매우 뜻 깊고 유익하다는 반응이 나와 이에 대한 발전 방안도 함께 찾아 나가기로 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농업인의 소득 불균형 개선과 고된 노동력 투입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미래농업의 발전 방안을 찾아나가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당부했다.

/무안=김수형 기자 ksh@

구례 식중독 예방·음식문화 개선 캠페인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1일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 정기총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례군지부 정기총회 행사를 찾아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례군은 이날 '식중독 예방·손씻기·의해먹기·끓여먹기 3대 요령 다같이 실천해요'와 '차릴 때는 먹음 만큼, 먹을 때는 남김없이!' 등의 홍보물을 배부하며, 참석자들에게 주지를 당부했다.

구례군은 특히 올해 이상기온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외식업 종사자들과 함께 음식문화개선 실천 결의대회도 가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 다가 올 산수유 꽃 축제와 봄철 각종 축제가 열리는 동안 관광객이 안전하게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구례=심건식 기자 sgeonsik@

Sunshine GWANGYANG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여성인 안전하고, 어르신이 건강한

행복도시 - 광양